

케빈 E. 프레데릭 박사, 왈도파, 강의 1A, 왈도의 개종의 뿌리 (서기 1172-1207년)

© 2024 Kevin Frederick 및 Ted Hildebrandt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프레데릭입니다. 저는 발덴시아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거의 10년 동안 섬겨왔고, 이 교회에서 제 역할의 일환으로 이곳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배경에서 끌어온 위대하고 풍부한 유산 때문에 발덴시아 사람들의 역사를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한 진정한 감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 회원의 50% 이상이 발덴시아 출신입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발덴시아 역사에 대한 여러 설교를 개발했고, 발덴시아 운동의 창시자인 피터 발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를 발도라고 부릅니다. 발데스는 프랑스어로 그의 이름이고, 그는 이 운동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누가복음 18장의 성경을 읽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월도가 인용한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성경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떤 통치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십니까?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당신은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옵소서.

좋은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숙고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주, 그들이 삶을 사는 방식은 예수께서 그날 부자 청년에게 주신 답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토라의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성경적 지시를 적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세요. 이 시대나 어떤 시대에도 이 지시를 그대로 따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완전하고 요구적이어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12세기에 성경적 명령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문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한 왈도라는 사람이 시작한 운동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12세기 후반 프랑스 리옹의 상업 무역에서 재산을 모은 부유한 상인, 왈도, 프랑스어로 발데스는 또한 가톨릭 교회에 헌신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시민이자 기업 리더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왈도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리옹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인 리옹은 12세기 프랑스에서 문화적이고 번영하는 사업 커뮤니티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로마 교회의 지역 중심지였으며, 그곳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월도가 가난한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을 개종하기 전 몇 년 동안, 월도는 라틴어에 능통한 교회 지도자 두 명에게 그 지역의 공통 언어로 성경의 일부를 번역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12세기에 그런 요청은 흔하지 않았고, 비교적 모호했기 때문에 가톨릭 교계의 주의를 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월도가 성경의 일부를 모국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교회 위계에서 눈감았고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월도는 이 번역된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의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삶에 적용되는 대로 그 의미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12세기에 월도가 자신의 재산을 팔고, 모든 소유물과 가난한 사람들을 내주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세기의 누군가보다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12세기에는 자선 외에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정부와 비영리 서비스가 결합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공 됩니다 . 월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어떤 나이에 사는 사람이든 절대적으로 큰 신앙의 도약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월도의 삶과 개종에 대한 모호한 역사적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참고점을 제공하는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1172년에 프랑스와 독일에 영향을 미친 심각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날씨 조건은 파괴적인 기근을 만들어냈고, 이는 특히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들었습니다. 월도는 상업에서 재산을 벌었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072년 5월 27일에서 8월 1일 사이에 발데스, 월도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일주일에 3일 정기적으로 빵, 수프, 고기를 제공했습니다.

그 해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그는 거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유한 상인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본 구경꾼과 친구들은 그의 정신 건강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돈과 창조에 노예로 삼은 적들에 대한 복수로 정당화했으며, 또한 청중들에게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친구들과 그의 아내를 포함한 사업 관계자들은 그가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유한 생활 방식과 생활 방식을 매우 중시했던 그의 아내는 필사적으로 그가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려고 했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그와 이치에 맞게 설득했지만, 월도는 마음을 고쳤습니다. 이로 인해 월도와 그의 가족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는데, 특히 월도가 자신의 재산과 재산의 상당 부분을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 할당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베푸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따르기 위해 월도는 자신의 가족과 거리를 두었고, 사실상 이혼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의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그들을 깊이 돌보았습니다. 제자로서의 그의 부름이 이제 그의 주된 초점이 되었습니다. 문맹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구전 전통은 그 역사의 보존과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2세기 유럽은 90%가 문맹이었습니다. 부유층과 지배계급만이 교육의 사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적 배경에서 스토리텔링, 시, 긴 발라드가 사회 내에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 수단이 되었습니다.

월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구두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급진적인 변화였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언어가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언어인 라틴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월도가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처음에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월도의 사역의 효과는 로마 가톨릭 교계에 위협으로 여겨졌고, 월도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성경에 대한 공개적인 선포를 비난했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리옹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렸고, 1184년에 파문당했습니다. 나중에 1215년에 그들은 이단자로 비난받았습니다.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교회에서 점점 더 조직화되었고, 14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이 이단과 그 추종자들을 모두 파괴하기 위해 십자군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이 기간 동안, 월도의 개종을 둘러싼 세 가지 별도의 신화가 월도파 공동체 내에서 등장하여 1172년 프랑스와 독일에 영향을 미친 기근을 둘러싼 사실적 데이터를 대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대체로 잊혀졌지만, 서유럽 전역의 월도파 공동체에서 등장한 신화는 1172년 리옹 시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근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월도의 대응에 대한 기억을 해석하고 보존했습니다.

역사가이자 발도파인 조르조 토리노는 1980년에 출간된 *《발도파인, 최초의 800년》* 의 저자이며, 발도파 목사이자 역사가이기도 합니다.